

인간성장호르몬제 시장 “쾌속”

국산 호르몬제 돌풍 100억원이상 판매 ... 수입대체 급진전

인간성장호르몬제 시장이 국산화에 의한 신수요 창출에 성공하면서 급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결핍성 왜소증 치료제인 인간성장호르몬제가 그동안 최소 6개월에서 1년여 동안의 장기적 치료기간과 과다한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극히 일부 계층에서만 수요가 이뤄져 왔으나 LG화학이 93년 상품화에 성공,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간성장호르몬제 수요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1992		1993		199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유티로핀	-	-	44억3000	-	105억2000	137
수 입	17억8000	23	29	19	19억6000	▽3
합 계	17억8000	67	278	124	124억8000	85

이런 가운데 최근 동아제약도 국내에서는 LG화학에 이어 두번째로 인간성장호르몬제제화에 성공, 임상실험단계에 있어 이 제제에 대한 수입대체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호르몬제는 첨단공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그동안 미국·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에 성공,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국산품에 비해 절대적으로 뒤떨어지고 품질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갈수록 수입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인간성장호르몬제 국내수요는 124억 8000만원으로 93년 67억3000만원에 비해 85.4% 급신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LG화학의 「유티로핀」판매실적은 93년 44억3000만원에서 94년 105억2000만원으로 무려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수입액 규모는 녹십자 「싸이트로핀」이 5억5000만원, 동아제약 「지노트로핀」 5억2000만원, 대웅윌리 「휴마트로프」 4억5000만원, 다림양행 「싸이젠」 4억 4000만원 등 총 19억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94년 국산품의 시장점유율도 93년 66%에서 18%포인트 상승한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은 「유티로핀」이 3만9000원으로, 8 10만원대인 수입품에 비해 2배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동아제약과 녹십자는 이같은 「유티로핀」의 빅히트에 영향을 받아 당초 8만원대였던 「싸이트로핀」과 「지노트로핀」의 가격을 5 6만원대로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원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가격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지만 완제품을 그대로 수입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간성장호르몬제 시장은 한정된 왜소증 환자수(4000 6000명정도) 때문에 더 이상의 급격한 수요확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5/1/23>

